

# 대한자동차경주협회 2020 정기 회원총회 회원 주요 의견 및 답변

2020년 8월 5일

2020년 대한자동차경주협회 정기 회원총회에 서면으로 의견을 주신 모든 회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총회는 코로나19 여파로 역대 처음으로 비대면 서면 결의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회원들이 적극 참여해 주셔서 오히려 대면 회의보다 많은 의견이 접수된 점에 협회는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 회원 여러분의 의견은 빠짐없이 논의되었으며 그 결과 및 답변을 분류해 전체 공유합니다.
- 회원 여러분의 의견은 취지를 살려 정서되었습니다.
- 유사 질문은 묶어서 정리하였으며 혹시 빠진 내용이 있다면 추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용 분류	회원 질의 및 답변
<b>협회 사업 및 정책 관련</b>	<p>- 온로드 박스카 경기외 드리프트, 짐카나 등 기초경기 활성화 방안 검토 요청합니다. →협회는 기초 3개 종목 표준 규정을 2020년 8월 제정 발표하는 등 경기 개최 여건 개선 활동을 해왔으며, 지역 단위 경기 활성화를 목표로 지부 개설을 추진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예산 관계로 기초종목 직접 개최는 당분간 추진하지 못하는 점 양해 바랍니다. 후원사 유치 등 예산 확보를 전제로 지역 대회 활성화 사업도 전개할 예정이며, 지부를 통한 대회 개최 및 경기장 차원의 기초종목 개최를 독려할 계획입니다.</p> <p>- 대중화사업 중 지역 단위 기초 종목 개최 여건 마련, 전문화 사업 중 온라인 시스템 도입, 오피셜 교육 이론에서 실무 중심 전환, 산업화 중 지부 개설 검토 사업안건에 반대합니다. →회원님이 특별한 반대 사유를 적시해 주시지는 않았지만 이 같은 의견이 있었음을 총회에 모인 이사진에게 명확하게 보고하였습니다. 모터스포츠 대중화를 위한 기초종목 발전 기틀 마련, 언택트 시대에 대비한 온라인화, 자생력 도모를 위한 산업화 과정은 협회 입장에서 필요한 사업이라 판단하고 있습니다.</p> <p>- 사업안에 찬성하지만 전년 대비 특별히 나아진 게 없어 보입니다. FIA 행사 참가(해외출장)는 내용이 무엇인지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불가피하게 포물러E 등 대형 국제대회가 최소 되어 당초 수립했던 사업계획이 일정 부분 축소되거나 변경된 점 양해 바랍니다. 회원분들께 제공했던 사업계획 중 FIA 출장부분은 통상적으로 반영하는 매년 12월 FIA 정기총회 참석 사안이며 올해는 감염병 등 여러 사정을 감안, 협회의 출장은 취소하였습니다.</p> <p>- 특정한 이익 혹은 사익을 추구하지 않는 지부의 설립과 설립 이후 상위 기관인 협</p>

회 차원의 관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 지부의 권한이 부정적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대응중입니다. 지속적인 협력과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지부가 설치되면 해당 지역 기존 오피셜들은 지부 가입 선택이 가능한지, 아니면 자동가입처리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가입 의사가 없는 오피셜도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지부 설치시 회원을 지역별로 조금 더 밀착하여 관리할 수 있게 됩니다. 현재 기준으로는 거주지 지역 회원을 지부가 챙길 수 있도록 하는 원칙입니다. 다만 라이선스 발급 및 관련 비용 납부, 경력 관리 등은 본회에서 직접 이루어집니다.

- 지부 개설시 개인적 친분에 기대지 말고, 하실 만한 분이 지부를 맡아야 합니다.

→지부 지원자 평가 기준을 마련하여 이사회가 심의하도록 장치를 만들어 운영 중입니다. 초기단계부터 공개 모집으로 투명성을 높였다는 점도 알려 드립니다.

- 지부 개설에 동의하지만 안전하고 공정한 대회 개최 및 운영, 교육에 대해서는 본부에서 집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경기 규정을 표준화하여 지역 대회의 안전성 및 운영 능력 강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교육 역시 지역 단위로 실시될 경우 협회의 매뉴얼을 통해 진행하도록 규제하고 있습니다.

- 지부설치 목적은 좋으나, 코로나로 인하여 어떤 여파가 생길지 모르니, 일단 기다려 보는 게 나을 듯 합니다.

→지부 설치의 올해 1단계를 시작으로 전국 5~6개 지역까지 중기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코로나19에 대한 여파도 예의 주시하여 개설 목적이 훼손되지 않도록 신중하게 추진하겠습니다.

- 지부 설치 찬성하나 지부의 자격 및 역할에 대해 정기적 심사 필요합니다.

→지부 설치시 매년 심의를 통해 자격을 연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지부 개설은 좋은 의견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내용이 없습니다. 예컨대 각 지부 관리 서울경기 충청 강원 호남 영남 등등을 대한자동차경주협회 어느 부서 혹은 이사 등 책임 추진 주체가 필요해 보입니다.

- 지부 운영시 지속적 운영이 가능한 인원 확보에 집중해야 합니다.

→지부 개설 추진과 관련, 실무적 세부 내용을 회원 한 분 한 분과 공유하기 힘든 점 때문에 준비 상황에 대한 설명이 부족 했던 것 같습니다. 협회는 입체적인 검토를 통해 지부의 권한과 역할, 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책임주체는 실무진에서 협회 전략지원팀이, 의결은 이사회 심의를 통해 진행되며 향후 지부 개설시 직원 1인이 1개 지부를 담당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 지부의 필요성 느껴지지 않습니다.

- 지부 개설 추천하지 않습니다. 서울 본회 인력 확충이 나아 보입니다. 지역파가 생기고 분열이 우려됩니다.

→지부 개설 추진은 본회의 조직망으로는 전국적인 모터스포츠 확산 및 관리가 어렵고 드라이버 1,000명 선을 넘기 힘든 현재 상태에서 커다란 진전을 이루기 어렵다는 판단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지부가 성공적으로 정착된다면 지역 단위의 엔트리 모터스포츠 활동 증가로 저변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본회 인력이 다소 증가

된다 해도 지역 기반의 자동차, 모터스포츠 커뮤니티에 대한 밀착과 지자체와의 협업에 한계가 있다는 판단입니다.

- 지부가 회원을 확충하거나 경기를 개최하는 목표와 관련, 협회의 지원 내용이 없습니다.

-지부의 운영에는 본회의 자금이 투입되지 않는 원칙을 바탕으로 모터스포츠 발전을 위해 지역 사회에서 힘써 주실 분들을 모신다는 취지이기에 자금성 지원은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교육 매뉴얼 지원, 행정지원, 경기 운영 가이드 등 여러 부문에서 협회의 지원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 시대 변화에 따른 모터스포츠의 인식 개선 및 저변 확대. 구성원들의 전문성과 유연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사업이) 진행되었으면 합니다.

→연내에 디지털 모터스포츠 강화 방안 등 시대 변화에 대응하는 사업안을 검토 기획 하여 이사회 및 회원 여러분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정기간행물(온라인) 발행으로 구성원들의 활동 결과 노출이 증가했으면 합니다.

→현재 온라인 및 모바일 형태의 정기 소식지 발행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예산 확보를 전제로 시기와 구체적 형식을 결정하여 결과를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모터스포츠발전 협의회라는 이름에 걸 맞는 운영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모발협은 우리 모터스포츠 업계 최초의 관련 참여자 네트워크로 현재 의결 및 사업 수행 기능은 가지고 있지 않으나 앞으로 실제 활동으로 이어지는 기구로 점진 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부처의 모터스포츠의 발전 계획 및 후원사 참여 구조에 대한 논의가 있었으면 합니다.

-학술 및 연구 개발을 통한 미래 발전 방안 도출이 필요해 보입니다.

→협회는 중기적으로 문화체육관광부, 국토교통부 등 관련부처와의 협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사전작업으로 한국스포츠경영학회, 한국자동차공학회, 국제전기차엑스포 등 각 부처 산하 기관과의 업무 협약을 체결했거나 8월내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들 기관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연구 기능 강화의 기틀을 마련하고 있으며 미래위원회 구성 및 보강을 통해 장기 발전 방안 수립을 준비 중입니다.

-코로나19 대응에 관한 사업계획 내용이 없습니다.

→총회 의결위원회에게 제공해 드린 계획안 중 공인경기 질 향상과 관련된 사업으로 감염병 대응이 추진되었습니다. 분량 문제로 세부 사업 항목까지 다 명시하지 못한 점 양해 바랍니다. 협회는 지난 2월말~3월초 사이 코로나 19로 인한 4월 공인대회 연기 권고를 내며 각 주최자 등에게 대응 기초 방안 및 수칙 등을 전달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질병관리본부 등 정부 방침에 발맞추어 지속적으로 감염병 상황을 주시하겠습니다.

#### [기타 의견]

- 현재는 힘든 시국이지만 대한민국 모터스포츠가 대중화, 전문화, 산업화되기를 기원합니다.

-협회장님을 비롯 모든 분들의 노고가 많습니다. 새로운 지부 설치 등 다각도로 모터

	<p>스포츠의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모습에 박수를 보냅니다. 모터스포츠의 운영에 애쓰고 있는 오피셜위원회의 위상제고를 위한 어떠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해 보입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무국 역량 강화 프로그램 확대에 찬성합니다.</li> <li>- 이견은 없으며 많은 제약에도 불구하고, 전년 대비 부족함 없는 결과라고 생각합니다.</li> <li>- 협회의 발전과 원활한 운영이 이루어졌으면 합니다.</li> <li>- 모터스포츠 발전을 위하여 지부 개설이 꼭 추진되기를 바랍니다.</li> <li>- 지부 개설에 찬성합니다. 모터스포츠 확대와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예상됩니다.</li> <li>- 지부 설치 찬성합니다. 경기장 거점 지역 중심 스포츠 인구 확산이 기대됩니다.</li> <li>- (지부 설치를 통한) 오피셜 및 레이서의 증가는 오히려 레이스 질의 하락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협회 기준으로 뭉칩시다!</li> <li>- 여러 지역에 지부를 설치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여러 가지로 봤을 때 1순위로 경북 지역의 지부 설치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li> </ul>
<p>오피셜 관련</p>	<p>-오피셜 요원급 인원의 실무 능력 저하가 우려되며, 일부 공인 대회 운영시 안전성 부족합니다. 현재 역량에서 내실 다지기가 필요합니다. 각 파트별 인스트럭터 인솔 하의 별도 실습생 운영제도 재도입을 추천합니다.</p> <p>→오피셜 요원급 인력의 실무 능력 향상 및 실습 강화는 협회도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선상에서 지난 2020년 7월25일 안전 및 구난 오피셜에 대한 현장 실습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상황을 반영한 다양한 실습 교육 방안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p> <p>- 오피셜들의 균등한 경기참여 유도 방안이 필요합니다.</p> <p>→경기에 참여하지 않는 자격 회원의 활용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p> <p>- 오피셜에 대한 공인 드라이빙센터(BMW등) 교육 참가를 유도하여 드라이버의 입장을 이해시키는 방안이 필요하다 생각됩니다.</p> <p>→오피셜의 드라이빙 교육은 경기 이해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나 자격 유지 및 승급을 위한 의무 사항으로 규정하기에는 아직 현실적 장벽이 있습니다. 이사회 논의를 거쳐 공인 레이싱 스쿨 이수자에 대한 승급 가점을 주는 방안 등 주신 의견의 취지가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p> <p>- 지표상 오피셜 A,C 등급 라이선스가 많이 늘었는데 현장에서 체감하기 힘듭니다. A 라이선스는 위원장급인데 보유자 중 실제 위원장 활동하는 인원은 손에 꼽히고, B등급 승급이 너무 쉬워 선임 역할을 제대로 못하는 현실입니다. 라이선스 등급이 실재를 반영할 수 있게 수정이 필요합니다.</p> <p>-오피셜 중 위원장급 직책은 다른 경기에서 중복 임명되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라이선스를 보유한 다른 이들에게 기회가 돌아가야 하지 않을까요?</p> <p>-현재 오피셜 등급 구분이 단순 경기참가 이력에만 근거하기 때문에 다른 평가 기준이 필요합니다.</p> <p>→ 협회도 관련 이슈를 인지하고 있습니다. 2020년 승급 규정을 개정하여 각 등급 최소 보유 기간 및 대회 참가경력을 보완하였습니다. 또 새 사업계획을 통해 B 등급 오피셜의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겠습니다. 오피셜 등급은 직무에 필요한 최소 자격 여부를 정의하는 데 필요합니다.</p> <p>하지만 경기현장에서 이 등급과 무관하게 힘든 일을 마다하지 않으시는 분들도 계시며 이는 경기에 기여하는 볼론티어 정신의 발현이라 생각됩니다. 상황에 따라 A 등급 오피셜이 요원급으로 봉사하거나 하는 해외 사례를 예로 들 수 있습니다.</p> <p>일부 상급 오피셜들이 경기 중복 참가로 인한 인원 활용 문제는 기본적으로 오피셜을</p>

선임하는 역할이 주최자에게 있다 보니 협회가 강제하기 보다는 권고를 통해 조율을 시도해 보겠습니다.

- 오피셜 위원회 활동이 예년 보다 줄었습니다. 협회의 일정 허가에 따라 진행되다 보니 적절한 위원회 활동에 지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피셜의 양적 팽창보다 질적 성장에 주력해 주길 희망합니다. 또 공정하고 안전한 경기 진행을 위한 경기장 관제 시스템(TMS)의 관리 감독 필요해 보입니다.

→협회는 코로나19 대응 차원에서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대면 미팅을 자제해 왔기에 각종 위원회의 활동이 다소 줄어든 점 이해 부탁드립니다. 오피셜의 질적 성장은 9기 집행부의 전략 과제 중 하나인 경기 선진화의 핵심 과제로 삼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TMS도 현황을 재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슈퍼레이스'의 'Judge of fact' 제도 도입 등으로 오피셜의 판단 및 보고가 더 중요해졌습니다. 이에 따른 명확한 판단기준을 근거로 수시 교육 필요합니다. 타 스포츠처럼 오심에 대한 조치사항이 필요해 보입니다. (예를 들면, 프로야구심판의 오심 삼진 아웃제도 등)

→'Judge of fact' 활동 오피셜에 대한 추가 교육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심판 오심에 대한 조치는 차기 심사 세미나 등 공론의 장을 통해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경기장에 오피셜 컴퓨터 설치 의무화하고, 지역 교육 강화해 주세요.

→아직 컴퓨터 설치를 하지 못하는 대회 주최사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건의해 주신 지역 교육 강화는 협회의 관심 사업입니다. 현재 경기장 인근 지역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기타 지역에 대한 교육은 차기 년도 사업에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수련 교육 수료자에 대한 A+발급이 진행되었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A+를 받았다 해도 참여 루트가 없는 상태에서 발급 확대가 과연 효과가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2호 의안과 연계하여 심사 교육생에 대한 지역 대회 활용 방안도 고민해 볼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지역은 서울/경기도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꼭 서킷이 필요하지 않은 경기에 대하여 전국 단위가 아닌 지역 단위의 경기를 만드는 것은 추후 전국 대회로 활성화할 수 있는 강점이 있습니다.

→심사 수련 과정 이수 완료자 중 일부 심의 과정이 남은 분들이 있습니다. 육성된 심사위원들은 앞으로 공인대회 확대 등 인력 부족 상황에 대비해 지속적으로 교육,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앞으로 활성화될 지역 대회에도 이 분들의 역할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 모바일 라이선스 발급으로 랜야드 및 보관하고 소장할, 라이선스 발급시 받게 되는 굿즈가 없는 게 아쉽습니다. 꼭 굿즈가 아니더라도 기념할 만한 게 있으면 좋겠습니다. (어플내 뱃지 모으기 등)

- 온라인 라이선스도 트렌드를 따라가는 것이지만 오프라인 라이선스 상품 사업화가 가능한지요?

- 라이선스 신규, 갱신 시 모바일로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오피셜 사명감이나 자부심을 위해서라도 종전되는 카드발급을 하시는 게 어떨까 건의 드립니다.

→차기 사업안에 오피셜의 기념품 제공 강화 방안을 추가하여 이사회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또 희망자에 한해 실물 카드를 유상 발급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협회 홈페이지의 오피셜 교육 동영상이 다양해졌으면 합니다. 해외경기에서 오피셜들의 활동(사고처리, 신호기제시 등)이나 사고차량 운전자 구조방법, 각 파트에서의 자세한 활동 내용 설명, 응급상황시 오피셜이 취해야 할 행동 등을 다루었으면 합니다.  
→협회는 올해 온라인 교육 체계 구축에 집중하여 추가적인 동영상 제작까지는 힘을 쏟지 못했습니다. 예산 확보 등을 통해 이후 2021년 사업 등에 반영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 지역 오피셜 소통 마련 건의합니다. (지역별 위원장 교육 실시)  
→실무교육 강화 차원에서 지역 오피셜 커뮤니티 강화 방안을 검토하여 이사회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레이스 디렉터의 권한과 책임, 경기위원장과 사무국장의 역할 구분 등에 대한 협회의 관리가 필요해 보입니다.  
→현 국내자동차경기규정을 통해 주최자는 레이스 디렉터의 역할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부문이 제대로 지켜지는지 지속 관리하겠습니다. 경기위원장과 경기사무국장의 역할 역시 규정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문구 해석의 문제나 현실 운영에서 나타나는 혼란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감안, 오피셜 위원회를 통해 점검에 나서도록 하겠습니다.

-기술 오피셜의 피트에서의 의무와 책임에 대한 보강교육이 필요합니다.  
→협회는 중기적으로 파트별 오피셜 실무 교육 강화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안전 오피셜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있으며 코스 오피셜, 기술 오피셜 등으로 범위를 순차 확대할 방침입니다.

**[기타 의견]**

-힘든 기상여건과 빽빽한 경기 스케줄 속에서도 묵묵히 경기에 임하는 '코스 오피셜'들에게 많은 물적, 양적 지원 부탁드립니다.

**경기 관련**

- 공인경기 관리 비용이 증액되었으면 합니다.  
→올해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일시적 관리 비용 절감안을 시행중이며, 상황 호전시 우선적으로 공인대회 관리 및 지원에 필요한 만큼의 예산 배정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전국 챔피언십/챌린지 등이 아닌 지역 챔피언십/챌린지 등의 소규모 아마 참여 대회를 만드는 방안을 고려했으면 합니다.  
→협회가 단계적으로 지부를 설치할 추진하는 가장 주요한 목적이 바로 지역 기초 종목개최 확대입니다. 중기적으로 지역대회에서 전국대회로 이어지는 스텝을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 공인 레이싱 스쿨외 공인 서킷 스쿨 금지해야 합니다. (레이싱 교육 참여생의 보험 문제)  
→레이싱 관련 교육 프로그램은 다양한 목적에서 추진되는 개별 사업자들의 활동입니다. 협회는 공인 레이싱스쿨 등록제도를 운영하여 교육 커리큘럼이나 교육생에 대한 서비스 저하를 방지하기 위한 감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등록되지 않은 개별 스쿨을 금지할 법적 권한이 없습니다. 비등록 개별 스쿨로 인해 회원 피해가 발생한다면 현황을 파악해 필요 조치를 검토하겠습니다.

- 공인 레이싱팀 및 스쿨이외 KARA C 라이선스 발급을 제한해야 합니다. D 라이선스는 온라인 교육으로, C라이선스는 발급을 제한하길 권합니다.

→현재 협회 라이선스 제도는 입문 기회를 확대하는 대신 경기 참가 등 경력을 쌓은 뒤 승급을 인정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C등급 발급 여건으로 실기를 전제로 하는 방안은 현 상황과 부합하지 않는 측면에 많은 점 이해 바랍니다. 협회는 경기력 향상을 위한 교육 및 정보 제공에 더 힘쓰겠습니다.

- 시즌 마무리후 각 경기 중요 사건 사고 내용에 대해서 협회 주관으로 정보 전달 및 의견 공유하는 프로그램 개선을 건의합니다.

→현재 협회-주최자간 감독관 리포트 공유를 통한 정보 교류가 매 경기 이루어지고 있으며 연간 디브리핑 효과가 있는 미팅을 개설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기차 종목의 개설, 카트와 시뮬레이션 경기의 확대를 제안합니다. SNS, 유튜브, 웹툰 등을 이용한 모터스포츠를 적극적이고 지속적으로 홍보도 필요합니다. (특히 어린이, 청소년 대상으로)

→전기차 관련 스포츠 위원회 구성 여부를 검토하겠습니다. 디지털 모터스포츠와 관련해서는 관련 공인방식 및 제도 도입을 위한 준비에 이미 착수했으며 연내에 공식적으로 추진 사항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SNS나 유튜브를 통한 모터스포츠 홍보를 위해서는 5편 분량의 영상 홍보물을 이미 제작하여 유통중이며, 올해는 어렵지만 추후 웹툰 등 어린이 대상 콘텐츠의 제작 여부도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라이버B 라이선스가 2018년부터 급격히 감소하였는데 원인이 무엇인지요?

→공인대회 중 드라이버B 라이선스 요구 클래스의 감소와 연관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드라이버가 많아지면서 상위 클래스의 승격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라이선스 발급 기준이 조금 더 엄격해져야 모터스포츠가 더 멋지게 발전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드라이버의 경험과 능력을 측정하기 어려운 관계로 현재 경기 참가 횟수를 기준으로 승급 가능 여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107% 룰 등 보완 제도를 통해 드라이버의 실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 [기타 의견]

- 코로나로 인해 일정 및 운영에 차질이 많습니다. 힘든 시기이지만 오히려 일정을 늘려 많은 사람에게 즐거움이 되길 바랍니다.